



### 동방경제포럼 소식

- 블라디보스톡에서 제8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번 동방경제포럼 계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 채널)
- 동방경제포럼 계기 푸틴 대통령은 2025년-2035년 중장기 극동발전 국가 프로그램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타스통신)
-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즈베즈다' 조선소를 참관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 지난 5년간 대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3%가 극동에서 이루어졌다.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세션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언급했다. (러시아-1 채널)
- 한국은 러시아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 FTA 체결 협상이 빠른 시일 내 끝나길 희망한다. 동방경제포럼 한국 대표단 단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즈베스티야 신문)
- 베트남은 2020년까지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100억 달러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베트남 외교부 차관이 밝혔다. (타스통신)
- 중국은 가스프롬이 실라사베리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춘화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밀러 가스프롬 회장과의 면담에서 러시아 가스의 중국 공급량 확대를 제안했다. (타스통신)
-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도쿄 올림픽 출전 협력을 합의했다. 양국 올림픽 위원회는 합동 훈련 및 시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 중국은 러시아에 세계 최대 메탄올 공장을 건설하길 원한다. 중국 Sherwood Energy 회사의 관련 합이서 체결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생산 공장은 하바로프스크 주에 들어설 계획이다. (베도모스티 신문)
- 노비텍과 소프콤플로트는 북극 사업용 선박 건조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합의했다. 양사는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관련 합이서를 체결했다. (코메르산트 신문)
- 극동 4개 지역은 크루즈 관광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해주, 캄차트카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타스통신)
-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제8차 APEC 국제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아태지역 대표단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PrimaMedia 통신)
- 향후 기업들은 극동 건설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방경제포럼 세션에서 논의될 예정인 2025년-2035년 중장기 극동발전 국가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베도모스티 신문)

**참고자료**

로스콘그레스 재단은 사회경제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진흥기관으로 국제 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로스콘그레스 재단은 2007년에 러시아 경제발전 촉진, 국가 이익 도모, 국가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경제이슈들을 여러 면에서 연구, 분석, 생산,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프로젝트, 투자 유치, 사회적 기업 및 자선 프로젝트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한다.

로스콘그레스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해마다 1만 여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을 포함 206개국에서 8만여 명이 참가한다. 연구보고 및 분석 활동에는 2,5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93개국 해외 기관 및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roscongress.org](http://roscongress.org)